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자금 조달과 경영성과

하오현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Operation Fund Financing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National and Public Medical Institutions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u-Hyun Ha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Busan Digit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과 이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설립운영 관리주체별 차이비교를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은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은 경영결과(적자, 흑자)와 유의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영자금 조달방법 조달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 의료기관의 운전자금 관리는 운영자금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고려한 비용관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내부운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적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리주체,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시스템, 운영자금, 운영자금조달방법, 당기순이익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inancing ratio by operation fund financing method and their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peration management entity of the medical institution. For the analysis method, ANOVA, logistic regression,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financial information registered with HASPA.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atio of gross revenue to operating fund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management enti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financing ratio of each operation fund financing method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management results(deficit, surplus), and the impact of the operation fund financing method on management performance differed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peration management entity. As a result, the management of operating funds of medical institutions is deemed appropriate to apply cost management first considering the ratio of revenue to operating funds, and then to utilize internal operating funds.

Key Words : Form of Establishment, HASPA(Hospital Accounting System Public Announcement), Operation Fund, Operation Fund Financing Method, Net Profit

1. 서론

1.1 서론

의료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1]. 병원 이 지니는 이중적 특성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임에도 불

*Corresponding Author : micalo@nate.com

Received March 12,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April 5,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구하고 운영상 계속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의 수익성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 특히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금흐름 측면의 요소들과 균형을 맞추어 이익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3-4], 정용모 등(2017)은 병원의 현금흐름과 관련된 연구에서 병원은 설립형태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 및 운영상의 자금흐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합병원들은 재무적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운영을 감가상각비 등과 같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5].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상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자본조달방법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경영과정상 필요한 자본조달은 영업활동과 그 외의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그리고 차입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병원자금조달 원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흐름은 내부자본조달의 원천으로 자금조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데[6], 이는 내부 경영적 요인에 의한 현금 부족 등으로 경영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7]. 이우천 등(2008)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최고경영자와 경리부서 책임자를 대상으로 자본조달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한 결과 내부유보자금,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각종 충당금, 금융기관 대출 등 차입, 리스 등의 순으로 이용한다고 하였다[8].

의료기관 운영자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하오현 등(2017)은 의료기관이 운영자금의 안전성과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해서는 미래현금 예측능력을 위한 관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한데[9], 정용모 등(2017)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재무적 측면에서의 운영자금 관리가 미래예측이 아닌 필요성에 의한 상황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유추된다고 하였으며[5], 이준범(2020)은 병원의 설립주체와 수익성 간에는 연관성이 존재하였다고 하였다[10].

본 연구는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병원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비율이 최종적인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의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관리주체별 운영자금 조달 방법 비교를 위한 자료는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3개년 재무정보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재무정보는 Table 1과 같이 국공립의료기관 189개 재무정보, 민간법인의료기관 611개 재무정보, 총 800개 재무정보로, 설립운영 관리주체별로는 국립대학교병원 44개, 공립기관(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병원 원자력의학원, 적십자병원, 지자체 설립 운영 병원) 145개, 사립대학교병원 183개, 의료법인 341개, 기타 비영리법인 87개 재무정보를 분석하였다.

2.2 지표산출

본 연구의 운영자금과 운영자금 조달방법 지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운영자금은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을 합산한 비용총액을 사용하였다[11].

$$\text{운영자금} = \text{의료비용} + \text{의료외비용} \quad (1)$$

운영자금 조달방법은 의료수익과 의료부대수익에 의한 조달, 의료외수익에 의한 조달로 수탁연구수익인 연구수익, 결손보전 및 운영비 보조금인 기부금수익, 그리고 그 외의 기타 의료외수익에 의한 조달, 현금지출 없는 내부유보자금에 의한 조달로 감가상각비에 의한 조달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에 의한 조달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운영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운영자금에 대한 비율로 산출하였다[11].

$$\text{운영자금 조달비율} = \frac{\text{운영자금 조달방법별 금액}}{\text{의료비용} + \text{의료외비용}} \quad (2)$$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관리주체별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과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s method에 의한 사후검정을 하였다(유의수준 $\alpha = 0.5$).

그리고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이 최종적인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과 설립운영 관리주체별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유의수준 $\alpha = 0.5$).

Table 1. Composition of Research Financial Information

Form of Establishment		2016	2017	2018	Total
National & Public Medical Instituti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4(5.3%)	15(5.6%)	15(5.6%)	44(5.5%)
	Public Institution	49(18.6%)	49(18.1%)	47(17.6%)	145(18.1%)
	Sub Total	63(24.0%)	64(23.7%)	62(23.2%)	189(23.6%)
Private Medical Institution	Private University Hospital	62(23.6%)	61(22.6%)	60(22.5%)	183(22.9%)
	Medical Corporation	110(41.8%)	116(43.0%)	115(43.1%)	341(42.6%)
	Other Non-profit Corporations	28(10.6%)	29(10.7%)	30(11.2%)	87(10.9%)
	Sub Total	200(76.0%)	206(76.3%)	205(76.8%)	611(76.4%)
Total		263(100.0%)	270(100.0%)	267(100.0%)	800(100.0%)

3. 연구결과

3.1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

본 연구대상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른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은 Table 2와 같이 1.0331이었다.

설립운영의 관리주체별로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 살펴보면, 사립대학교병원 1.0625(최소 0.5508, 최대 1.3554), 의료법인 1.0338(최소 0.6602, 최대

1.2621), 기타 비영리법인 1.0209(최소 0.7368, 최대 1.2111), 공립기관 1.0132(최소 0.8302, 최대 1.2417), 국립대학교병원 0.9949(최대 0.8092, 최대 1.0632)로 의료기관 설립운영의 관리주체에 따라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정 결과 사립대학교병원의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립대학교병원의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Ratio of Gross Revenue to Operation Funds

Form of Establishment		M	S. D.	Minimum	Maximum	F(p)
National & Public Medical Instituti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9949a	.0533	.8092	1.0632	14.070 (.000)
	Public Institution	1.0132a,b	.0627	.8302	1.2417	
Private Medical Institution	Private University Hospital	1.0625c	.0927	.5508	1.3554	
	Medical Corporation	1.0338b,c	.0675	.6602	1.2621	
	Other Non-profit Corporations	1.0209a,b	.0622	.7368	1.2111	
Total		1.0331	.0744			

post hoc analysis of Scheffe's method : a<b<c

3.2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

운영자금 조달비율을 설립운영의 관리주체별로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은 의료기관 설립운영의 관리주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을 살펴보면, 의료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연구대상 전체 재무정보 평균이 0.9787, 의료부대수익에 의한 조달비율 0.0190, 의료외수익에 의한 조달로 수탁연구수익인 연

구수익에 의한 조달비율 0.0050, 결손보전 및 운영비 보조금인 기부금수익에 의한 조달비율 0.0086, 기타 의료외수익에 의한 조달비율 0.0217, 현금지출 없는 내부유보자금에 의한 조달로 감가상각비에 의한 조달비율 0.038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에 의한 조달비율 0.0245이었다.

운영자금 조달방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사립대학교병원(1.0231), 의료법인(1.0097), 기타 비영리법인

(0.9613), 국립대학교병원(0.9290), 공립기관(0.8755)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사립대학교병원과 의료법인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기타 비영리법인과 국립대학교병원, 그리고 공립기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의료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공립기관이 가장 낮았다.

의료부대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공립기관(0.0636), 기타 비영리법인(0.0230), 국립대학교병원(0.0164), 의료법인(0.0067), 사립대학교병원(0.0053)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의료부대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공립기관이 가장 높고 의료법인과 사립대학교 병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외수익에 의한 조달로 수탁연구수익인 연구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0.0257), 사립대학교병원(0.0092), 기타 비영리법인(0.0046), 공립기관(0.0033), 의료법인(0.0009)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국립대학교병원 기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립대학교병원 그리고 그 외의 설립운영 관리주체로 구분되었다.

결손보전 및 운영비 보조금인 기부금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공립기관(0.0353), 국립대학교병원(0.0098), 사립대학교병원(0.0052), 기타 비영리법인(0.0010), 의료법인(0.0009)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공립기관과 공립기관 외의 설립운영 관리주체로 구분되었다.

Table 3. Financing Ratio by Operation Fund Financing Method

Operation Fund Financing Method	National & Public Medical Institution		Private Medical Institution			Total	F(p)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blic Institution	Private University Hospital	Medical Corporation	Other Non-profit Corporations		
Medical Revenue	.9290b ±.0592	.8755a ±.1061	1.0231c ±.0938	1.0097c ±.0667	.9613b ±.0848	.9787 ±.0992	85.429 (.000)
Incidental Revenue of Medical	.0164a,b ±.0114	.0636c ±.0625	.0053a ±.0076	.0067a ±.0149	.0230b ±.0303	.0190 ±.0372	102.117 (.000)
Research Revenue	.0257c ±.0222	.0033a ±.0137	.0092b ±.0097	.0009a ±.0049	.0046a ±.0127	.0050 ±.0120	64.104 (.000)
Contribution Income	.0098a ±.0069	.0353b ±.0471	.0052a ±.0118	.0009a ±.0028	.0010a ±.0020	.0086 ±.0245	74.283 (.000)
Other Non-Medical Profits	.0140a ±.0081	.0354c ±.0623	.0198a,b,c ±.0399	.0156a,b ±.0139	.0310b,c ±.0498	.0217 ±.0384	8.947 (.000)
Depreciation Expense	.0486c ±.0273	.0155a ±.0109	.0406b ±.0147	.0459b,c ±.0221	.0424b,c ±.0125	.0389 ±.0215	75.863 (.000)
Amount of reserve for unique purpose project	.0059a ±.0161	.0043a ±.0149	.0686b ±.0716	.0145a ±.0278	.0137a ±.0248	.0245 ±.0470	73.016 (.000)

post hoc analysis of Scheffe's method : a<b<c

기타 의료외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공립기관(0.0354), 기타 비영리법인(0.0310), 사립대학교병원(0.0198), 의료법인(0.0156), 국립대학교병원(0.0140)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공립기관이 가장 높고 국립대학교병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금지출 없는 내부유보자금에 의한 조달로 감가상각비에 의한 조달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0.0486), 의료법인(0.0459), 기타 비영리법인(0.0424), 사립대학교병원(0.0406), 공립기관(0.0155)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국립대학교병

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의료법인과 기타 비영리병원, 사립대학교병원, 공립기관 순으로 구분되었다.

현금지출 없는 내부유보자금에 의한 조달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에 의한 조달비율은 사립대학교병원(0.0686), 의료법인(0.0145), 기타 비영리법인(0.0137), 국립대학교병원(0.0059), 공립기관(0.0043)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사립대학교병원과 그 외의 설립운영 관리주체로 구분되었다.

3.3 운영자금 조달과 경영성과

3.3.1 운영자금 조달비율과 경영결과 간 관계

연구대상 전체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운영자금 조달 방법별 조달비율과 경영결과(적자, 흑자) 간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이, 전체 분류 정확도 94.6%로 설립운영 형태의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 구분과 운영자금 조달방법

중 감가상각에 의한 조달비율을 제외한 의료수익에 의한 조달·의료부대수익에 의한 조달·의료외수익인 연구수익에 의한 조달·결손보전 및 운영비 보조금인 기부금수익에 의한 조달·기타 의료외수익에 의한 조달, 현금지출이 없는 내부유보자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의한 조달비율이 경영결과(적자·흑자)에 유의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Net Profit and Operating Fund Financing Methods

Measure			Prediction		
			Management Performance		Classification accuracy %
			Deficit	Surplus	
Management Performance (Net Profit)	Deficit	300	278	22	92.7
	Surplus	500	21	479	95.8
All %		800	299	501	94.6
$\chi^2(p) : 835.329(.000)$					

Operation Fund Financing Method	B	S.E.	Wals	p-value	Exp(B)
Medical Revenue	295.749	31.045	90.754	.000	2.769E+128
Incidental Revenue of Medical	293.905	31.409	87.561	.000	4.377E+127
Research Revenue	299.642	34.575	75.106	.000	1.358E+130E
Contribution Income	282.180	33.333	71.665	.000	3.540E+122
Other Non-Medical Profits	294.075	31.919	84.880	.000	5.189E+127
Depreciation Expense	-13.592	10.761	1.595	.207	.000
Amount of reserve for unique purpose project	-297.602	30.786	93.447	.000	.000
Form of Establishment(1: National & Public, 2: Private)	.310	.749	.171	.679	1.363
(Constant)	-294.680	30.991	90.414	.000	.000

3.3.2 운영자금 조달방법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리주체별로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국립대학교병원 의료수익, 의료부대수익, 연구수익, 기타 의료외수익, 감가상각비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부금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립기관은 의료수익, 의료부대수익, 기부금수익, 기

타 의료외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구수익과 감가상각비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사립대학교병원은 의료수익, 기부금수익, 기타 의료외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료부대수익, 연구수익, 감가상각비에 의한 운영자금 조

달비율은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법인은 의료수익, 의료부대수익, 연구수익, 기부금수익, 기타 의료외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감가상각비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5. Effect of Financing ratio by Operation Fund Financing Method on Net Profit

variables	National & Public Medical Institution		Private Medical Instituti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blic Institution	Private University Hospital	Medical Corporation	Other Non-profit Corporations
(Constant)	-12.096 (.000)	-7.818 (.000)	-15.738 (.000)	-18.970 (.000)	-1.009 (.316)
Medical Revenue	13.508 (.000)	8.388 (.000)	16.121 (.000)	19.847 (.000)	1.035 (.304)
Incidental Revenue of Medical	3.623 (.001)	3.826 (.000)	1.963 (.051)	5.883 (.000)	2.150 (.035)
Research Revenue	3.823 (.001)	1.561 (.121)	.615 (.539)	9.549 (.000)	-3.967 (.000)
Contribution Income	1.837 (.075)	4.207 (.000)	3.117 (.002)	2.734 (.007)	-1.831 (.071)
Other Non-Medical Profits	2.692 (.011)	5.238 (.000)	9.768 (.000)	5.390 (.000)	.782 (.436)
Depreciation Expense	2.700 (.010)	-1.030 (.305)	1.859 (.065)	-.932 (.352)	-.183 (.856)
Amount of reserve for unique purpose project	-3.784 (.001)	-2.550 (.012)	-14.314 (.000)	-5.943 (.000)	1.310 (.194)
R ²	.896	.358	.639	.628	.375
F(p)	44.106 (.000)	10.930 (.000)	44.254 (.000)	80.217 (.000)	6.757 (.000)

Dependent variable : Net Profit

기타 비영리법인은 의료부대수익, 연구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료수익, 기부금수익, 기타 의료외수익, 감가상각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즉 현금지출 없는 내부유보자금에 의한 조달로 감가상각비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은 국립대학교병원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쳤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은 기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설립운영 관리주체(국립대학교병원, 공립기관, 사립대학교병원, 의료법인)에서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고찰 및 결론

기업경영은 유동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에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12]. 최만규(2002)는 우리나라 민간병원들의 자본조달구조가 취약한 상

태라고 하였는데[13],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조달방법의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병원경영의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과 예측 등 자금관리 방침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2].

의료기관의 운영자금조달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재명 등(2006)은 병원 자본조달형태 분석에서 내부유보수준으로 자금소요액을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하였으며[14], 정용모(2013)는 우리나라 병원들은 개인기업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병원이 비영리산업이라는 인식이 약하며 이는 기부금 문화의 사회적 활성화가 성숙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였다[2]. 또한 하오현(2017)은 병원들의 매입채무 변동이 부채상환능력에 유의한 판별함수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며[3], 이준범(2020)은 병원 설립주체에 따른 의료수익성에 관한 연구에서 병원의 설립주체와 수익성 간에는 연관성이 존재하였는데 국공립병원이 다른 법인체 병원보다 수익성이 낮았다고 하였다[10]. 또한 정용모 등(2020)

은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의료원들은 자체발생수익과 내부유보자금 등을 고려한 비용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1].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3개년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관리주체별로 운영자금 조달방법을 살펴보고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은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립대학교병원이 가장 높았고 국립대학교병원이 가장 낮았다. 이는 병원의 수익성은 설립주체와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이준범(2010)의 결과[10]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의 관리주체별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을 살펴보면, 의료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사립대학교병원과 의료법인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부대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공립기관이 가장 높았다. 연구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이 가장 높았으며, 결손보전 및 운영비보조금에서는 기부금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공립기관이 가장 높았고, 기타 의료외 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공립기관이 가장 높았다. 내부유보자금에서는 감가상각비에 의한 조달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이 가장 높았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에 의한 조달비율은 사립대학교병원이 가장 높았다. 정용모 등(2017)은 병원의 현금흐름 종류가 순운전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종합병원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운용을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5], 본 연구결과 7종류의 운영자금 조달방법 중 감가상각비에 의한 조달비율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에 의한 조달비율이 공립기관을 제외한 국립대학교병원·사립대학교병원·의료법인·기타 비영리법인에서 높은 순위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용모 등(2017)이 제시한 현금유출 없는 비용인 내부유보자금에 의한 자금운용 의존이 높다는 제시와 유사한 의미를 보였다[5]. 또한 정용모 등(2017)은 병원은 설립형태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 및 운영상의 자금흐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는데[5], 본 연구결과에서도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구분이 아닌 의료기관 설립운영의 관리주체별로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의 관리주체별 운영자금 조달방법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의료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기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설립운영 관리주체에서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료부대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사립대학교병원을 제외한 설립운영 관리주체에서 당기순이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외수익인 연구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서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결손보전 및 운영비 보조금인 기부금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기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설립운영 관리주체에서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기타 의료외 수익에 의한 조달비율은 기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설립운영 관리주체에서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내부유보자금에서는 감가상각비에 의한 조달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에서만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에 의한 조달비율은 기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설립운영 관리주체에서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오현 등(2017)은 의료기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차입금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종합병원들의 운전자금 안정성을 위한 자금관리는 감가상각비와 당기순이익의 관계 그리고 이들과 차입금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는데[7], 본 연구의 감가상각비에 의한 운영자본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만 확인되었다.

운전자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병원들은 재무적 측면에서의 운영자금 관리가 미래예측이 아닌 필요성에 의한 상황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유추된다고 하였으며[5], 의료기관들이 운영자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미래현금 예측능력 관리방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7]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과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을 살펴본 결과 정용모 등

(2017)이 제시한 결과[5]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하오현 등(2017)이 제시하였듯이[7] 운전자금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운영자금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고려한 비용관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수익이 운영자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부유보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적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공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결손보존 및 운영비 보조금 의존도에 대해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운영자금 구성 등에 관해 국외 참고문헌이 충분하지 않아 국내문헌으로만 비교고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N. C. Kim.. (2020). Differential Effects of Governmental Direct and Indirect Subsidy on Profitability of Health Care. *Tax and Accounting Study*, 9(1), 129-159.
DOI : 10.22821/ktri.9.1.202002.004
- [2] Y. M. Jung. (2013). Raise Capital type and Investment Efficiency of Hospital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3), 161-176.
DOI : 10.12811/kshsm.2013.7.3.161
- [4] A. H. Ha. (2017). Influences of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on Debt Repayment Capability in General Hospitals and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6), 98-105.
DOI : 10.5392/JKCA.2017.17.06.098
- [5] Y. M. Jung & A. H. Ha. (2017). Relationship between Net working capital and Cash flows in General Hospitals, Hospital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 312-318.
DOI : 10.5762/KAIS.2017.18.6.312
- [6] Y. M. Jung, Y. C. Lee & J. D. Lim. (2010). The Relationship of Cash Flow and External Funding in Hospital.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4(1), 87-97.
- [7] Y. J. Moon & D. H. Yang. (2006). A study on the Predictability of Hospital's Future Cash Flow Information.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11(3), 19-41.
- [8] W. C. Lee & Y. C. Ahn. (2008). The Priority Analysis on the Financing of Healthcare Institutions in Korea.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13(3), 1-16.
- [9] A. H. Ha & Y. H. Lee. (2017). Effects of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on the Changes in Borrowing in General Hospitals and Hospital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1(1), 1-9.
DOI : 10.12811/kshsm.2017.11.1.001
- [10] J. B. Lee. (2020).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hospital founders and hospital profitability.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orea, 44-48.
- [11] Y. M. Jung & A. H. Ha. (2020). Operation Financing Method for Management Activities and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Regional Public Hospital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1), 324-331.
DOI : 10.22156/CS4SMB.2020.10.11.324
- [12] Y. J. Moon. (2006). An Empirical study on the Predictability of Public Hospital's Cash Flow Model. doctoral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1-25.
- [13] M. K. Choi. (2002). A Study on the Financing Decision of Korea Private Hospital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7(3), 25-43.
- [14] J. M. Kim, U. S. Ham & Y. C. Ahn. (2006). Hospital's Financing Behavior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off Theory and Pecking Order Theory.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11(2), 61-86.

하 오 현(Au-Hyun Ha)

[중신회원]



- 2012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보건학석사)
- 2017년 2월 : 부산대학교 의료산업학과(의료산업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병원경영, 조직관리, 병원재무
· E-Mail : micalo@nate.com